

The Merchant of Venice에 있어서의 화폐와 인간 관계

李 起 旭*

I. 서 론

창작문학은 작가가 의도하거나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은 태어나서 투쟁하며 사랑하고 고통을 받게 되며 그러다가 죽게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노력은 사회적 세계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적응 심지어는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켜 보려는 인간의 욕구나 그러한 욕구의 좌절과 관련된다. 작가는 이 처럼 사회내의 사회적 인간을 그려내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공간을 토대로 갈등하는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작품내의 공간설정은 인물들이 행동할 터전이 되는데 이는 가상의 사회 혹은 상상의 사회가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가상의 사회가 실제의 사회와 무관한 인간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작가의 경험과 직결되고 있고 그의 경험을 토대로 세워지는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작중인물이 활동하는 작품내의 사회는 작가 자신의 생활하던 사회적 양상을 은연중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작가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꾸며내며 작중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인물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그려냄으로서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의 창출은 엄밀히 인간의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과 관련된다. 이를테면 사회내의 여러 계급의 특권과 책임, 노동 그리고 우정과 사랑등의 실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룩된다. 이때 인물들은 작가의 치밀한 상상력에 의해 타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그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하에 배치된다. 작가가 보여주는 가치란 특정 인물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인물과 마주칠 때 취하는 저마다의 행위를 통해서 제시된다.

본고는 작품에 내재되고 있는 사회적 양상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Shakespeare의 극 The Merchant of Venice이다. 이 극은 Shakespeare의 생존 당

* 人文大學 專任講師

시부터 성공적으로 공연되어왔고 오늘날도 널리 읽히거나, 빈번히 공연되는 극이다. 또한 Pettet¹⁾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극은 Shakespeare의 낭만희극중 드물게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회상황에 대한 이해가 작품자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연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 작품이다. 극작품을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우선 모든 극작품이 공연을 전제로 씌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창작 과정에서 쓰여지는 극은 상연될 극장의 구조나 배우들의 개성, 나아가서는 관객의 기호까지도 신중히 고려되며 쓰여진다. 특히 공연시의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 관객의 호응을 전제로 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관객의 태도 심지어는 편견까지도 의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극장과 관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작품은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의 다른 장르와 상이하게 구분된다. 희곡이란 Styan²⁾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대와 관객사이에 발생하는 의미전달 과정에서 극작가가 배우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 공연예술의 영역을 떠나서 독자들이 읽고 분석하는 문학의 한 형식으로 다루어 질 때도 극작품에 있어서의 사회적 양상에 대한 관심은 무시될 수 없다. 어느 다른 문학 작품에서와 같이 극작품도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작가에 의해 설정된 사회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렇다.

일찍이 Gervinus³⁾는 Shakespeare의 극 *The Merchant of Venice*를 검토하면서 이 극의 비평에 주목할 만한 점을 지적해 놓았다. 그는 이 극이 인간의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극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재화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극의 무대가 된 베니스나 벨몬트는 부유한 계층의 젊은이들의 생활 무대가 되고 있으며 재화는 Burckhardt⁴⁾의 지적처럼 사업의 통화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의 통화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본고는 Shakespeare의 극의 이해를 목적으로 재화와 관련되는 인간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극작가가 제시하는 궁극적 가치의 문제를 밝히려는 데 있다. 작가가 제시하는 궁극적 가치의 문제는 작가의 시대적인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은 비평가들 사이에 공통된 관점이다. Auden⁵⁾이나 Pettet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비평가이다. 이들에 의하면 극의 중심적 문제는 화폐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도덕적, 경제적 문제로서의 고리대금업의 문제는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싼 상이한 태도의 문제로 극의 해석에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비평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면서 당시의 사회상의 파악과 아울러 극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는 화폐와 인간간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화폐의 역할을 규명하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1) E. C. Pettet, "The Merchant of Venice and the Problem of Usury" in *The Merchant of Venice: Casebook* ed. by John Wilders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p.100.
- 2) J. L. Styan, *Drama, Stage and Audience* (New York: Cambridge, 1975) p.2.
- 3) John Wilders (ed.): *The Merchant of Venice* (London: (ed.)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pp.34~36.
- 4) Sigurd Burckhardt, 'The Merchant of Venice: The Gentle Bond' in *The Merchant of Venice* ed. by John Wilders (London: The Mac Millan Press Ltd. 1981). pp.208~223.
- 5) W. H. Auden, 'Brothers and Others' in *The Merchant of Venice*, ed. by John Wilders (London: The Mac Millan Press LTD. 1981). pp.224~240.

II. 시대적 배경

Shakespeare가 살았던 Tudor 왕조는 “팽창과 모험”⁶⁾의 시대로 지칭된다. 이 시대가 희극이나 기타의 문학작품속에 빈번히 언급되는 항해, 폭풍우, 해상전투등의 용어들은 모두 이 시대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용어들이다.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동방무역을 위한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면서 이들 새로운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얻어지는 막대한 재화는 격변의 시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Drake, Hawkins, 그리고 Raleigh와 같은 위대한 영국의 선원들은 당시의 개인주의와 기업가정신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써 모험심에 불타는 젊은이들의 이상이 되었다. 이들 모험가들에 의해 영국으로 유입되는 재화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는데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사회질서의 변화는 중세 봉건사회 체제로 부터 근대 절대군주국으로의 전환이었다. 중세의 영국은 그 당시 기독교 세계로 알려진 서구 유럽의 한 부분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다.⁷⁾ 국가의 기간산업은 농업이었고 사회의 구조는 그 사회의 토지 소유제도에 따라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봉건제였다. 국왕과 귀족 그리고 교회의 주교들과 성직자들이 전국토의 대부분을 지배하였으며, 모든 조직은 엄격한 계급의 조직하에 놓여 있었고 농노들은 지배계급에게 법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체제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영향력이 가해지면서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중세적 사회구조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장미전쟁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투쟁으로 많은 봉건 귀족들이 제거되어 Tudor왕조에서의 사회구조의 재편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새로운 계층은 영주와 농노사이의 갭을 연결하면서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무역, 특히 피륙 수출업이 전통적인 길드의 능력을 압도하게 되었고 자치시들 특히 런던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인쇄술의 보급은 평신도들 사이에 지식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로 다른 문제들에서와 같이 종교에 관해서도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 질서의 중심적 위치는 주로 상인들로 구성된 부유한 중산층이 차지하였다. 상인들은 그들 자신이 건조한 상선을 이용, 부를 찾아서 새로운 해안이나 대륙을 탐험했고, 상선의 소유자는 장대한 모험에 그의 전 재산을 걸어야 했다. Shakespeare의 *The Merchant of Venice*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토지에 의존하던 사회적 윤리는 금전자본에 의존하는 사회의 윤리와 대립하였고 적어도 이 극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한 시대의 사회에 나란히 신구의 두 윤리체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상업사회로의 변화로 말미암아 중세의 가치관이 상업주의 윤리관에 의해 대체됨을 뜻한다.

중세적 개념에 의하면⁸⁾ 인체나 마찬가지로 사회는 상이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각

6) G. K. Anderson of W. E. Buckle, *The Merchant of Venice* (Atlanta: Foresman and Company, 1967), p. 159.

7) M. M. Badawi (전팔근·이상오 공역), *셰익스피어의 배경* (서울: 문화사, 1983), p. 36.

8) R. H. 토니(김종철역),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한길사, 1984), p. 38.

개 구성원들은 독자적인 기능, 말하자면 기도, 국방, 상업, 경작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각자는 자기의 지위에 걸맞는 수입을 받아야지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계급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한 계급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계급의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안에서는 평등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생계의 수단을 손에 넣으면 그의 이웃은 궁핍을 느끼게 될 것이다. 농민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영주들도 농민을 약탈해서는 안된다. 장인들과 상인들은 그들의 천직을 유지할 만큼의 것을 받아야지 그 이상의 것을 받으면 안된다.

중세적 윤리에 의하면 간단히 말해서 사회는 경제적인 자기 이익의 표현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상호관계가 있는 의무의 체계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회의 복지는 각개 계급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거기에 비례하는 권리들을 누리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윤리에 의해서는 무한한 부의 욕망을 본질로 삼는 상업사회의 금융과 교역의 윤리는 긍정적으로 해석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 Shakespeare의 시대는 새 질서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었으나 전 상업시대에 고안된 개념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뒤늦게 나타난 금융과 교역에 관련된 상업사회의 개념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Ⅲ. 작품내의 사회양상

분석의 대상으로 택한 *The Merchant of Venice*의 세계는 베니스와 벨몬트라는 대비적이고 상이한 두 사회로 구분되고 있다. 극은 베니스에서 시작되며 벨몬트와 두곳을 교대로 무대로 삼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4막에서는 베니스, 그리고 5막에서는 벨몬트만을 무대로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이한 두 사회의 제시는 적어도 희극적 내용 혹은 구도에 맞춰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Frye⁹⁾에 의하면 희극적 행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이한 두 공간의 설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희극의 행동은 정상적인 세계(the normal world)를 대변하는 어느 한 세계에서 시작하여 초록의 세계(the green world)로 이동하며 희극적 해결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변화를 겪고 나서 다시 정상적인 세계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이 전희극작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설득력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주목될 수 있는 점은 극에 내재한 갈등의 문제는 정상적인 세계의 문제인데 비현실적 세계, 즉 녹색의 세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정상의 세계에서 해결된다는 점이다. Frye의 구분에 따르면 본 작품의 상이한 두 세계중 하나인 베니스는 정상의 세계 혹은 현실의 세계가 되며 다른 하나의 벨몬트는 초록의 세계가 된다.

Shakespeare가 베니스를 그의 작품의 주 무대로 설정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추측할 수 있으나

9) Northrop Frye, 'The Argument of Comedy' in *English Institute Essays* ed. by D. A. Roberts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일차적으로는 Shylock 플롯을 차용하고 있는 원전에서의 장소가 베니스라는 점, 둘째로 상업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베니스야말로 당시의 비대하게 증대된 런던을 드러내기 위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Shakespeare는 이 극을 쓰는 과정에 여러 출처에서 소재를 구했는데, 살코기 일 파운드를 담보로 부유한 상인이 유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내용인 소위 Shylock 플롯은 이태리 작가 Ser Giovanni의 Il Pelorone에서 차용한 것이다.¹⁰⁾ 오늘날 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당시에서는 이 책의 영역본이 나돌고 있어서 Shakespeare가 이것을 입수하였는데 원작의 작품무대인 베니스를 그의 작품에도 그대로 적용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베니스라는 도시는 일찌기 동방무역을 착수하여 유럽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다. 동방의 산물인 향료, 비단, 棉 그리고 사탕을 수입하기 위하여 서방산물로는 피혁제품이나 모직물을 거래하였다.”¹¹⁾ 베니스의 사업범위는 광범위하여 서방으로는 플란더스와 영국까지, 동방으로는 아시아의 중심부까지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Shakespeare의 시대의 London은 베니스를 모형으로 삼을 만큼 크기에 있어서나 중요성에 있어서도 비대해졌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런던의 인구는 16세기초의 7만에서 16세가 끝날 무렵에는 20만으로 증가했다.¹²⁾ 이러한 숫자는 오늘날에는 별로 많은 인구가 아니지만 엘리자베스 시대의 평균 도시인구가 5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엄청난 숫자였다. 인구의 이러한 증가는 그 당시 도시의 중요성이 매우 컸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의 런던은 국내무역과 해외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베니스와 같은 국제적 도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Granville-Barker¹³⁾가 지적하듯이 베니스는 당시의 관객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으며 베니스와 관련된 사건은 런던에서의 그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The Merchant of Venice가 초원부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봐 베니스를 무대로 한 거상과 고리대금업자의 갈등의 주제는 런던의 관객에도 상당한 공감을 주었으리라고 예측된다.

Shakespeare가 구체적으로 베니스를 설명하고 있는 무대 제시는 없다. 이 도시의 상은 주로 극중대사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거대한 상선, 상거래소, 상인, 공중인,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콘도라, 여객선 등으로 암시되듯이 무역의 도시로 제시되고 있다. 베니스는 원자재든 제조품이든 어떤 것도 자체로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고 도시 자체의 경제는 국제무역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쪽에서 헐값에 산후 다른쪽에서 비싸게 팔고 남은 이윤에 그곳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곳의 부(wealth)는 토지나 건물에 있다가 보다는 축적된 금전자본에 있었다. 베니스 상인은 모직물등의 제조품과 동방의 향료, 비단등을 교역하면서 동서무역의 교량적 역할을 해 냄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얻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하게 편리한 교환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하는 사회적 힘의 한 형식

10) John Russell Brown, *The Arden Shakespeare: The Merchant of Venice* (London: Methuen & Co. Ltd., 1977). p. X X VII.

11) Crane Brinton外(양병우外 공), *세계문화사 Vol.1.* (서울: 율유문화사, 1969), p. 668.

12) M. M. Badawi (전팔근, 이상오 공역) *셰익스피어의 배경* (서울: 한신문화사, 1983), p. 54.

13) Granvill-Barker, *Prefaces to Shakespeare vol.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6), p. 345.

이 되었다. 베니스에서는 상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어서 부에 대한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돈은 거래의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루는데에도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또한 베니스는 단순한 상업사회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역의 도시에 어울리게 서로 다른 다양한 민족의 거주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이들 민족집단은 저마다의 고유한 신과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집단은 타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의 거주 집단의 다양성은 기독교도와 유대인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의 영속을 서로의 존재와 그들이 갖는 상대적 가치관을 인정해야 함에도 그들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베니스의 법은 관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법에의 준수를 강요하고 있다.

벨몬트의 세계는 법과 계약에 의해 지배되는 상업사회인 베니스와는 대조가 되는 곳이다. 벨몬트의 주인인 Portia는 베니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량함, 섬세함을 지니고 있어서 베니스와는 상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 도시는 상자고르기로 대변대듯이 사랑과 진실이 문제가 중시되고 있으며 음악과 조화, 우애와 관용이 강조되는 Auden이 언급하는 “우화”의 세계이며 Frye의 초록의 세계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아무런 교리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은 소위 무종교의 도시이다. 모든 사람들은 古代風으로 말해지고 있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대화의 주제는 로마인의 취향을 뵈고 전적 근원을 갖고 있다. 이 우화의 세계인 벨몬트에는 Cato의 딸이며 Bratus의 아내였던 유명한 로마의 미녀 Portia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부유한 상속녀 Portia가 그녀의 시녀 Nrtisa와 더불어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줄 연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같이 베니스가 사업과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인관관계가 계약의 지배를 받는 현적 세계라면, 벨몬트는 모든 것이 포용되고 승화될 수 있는 우화의 세계이며 사랑과 진실의 세계이다.

그러나 외견상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베니스와 벨몬트의 두 사회는 여러가지 유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모두 부유한 사회로 부(wealth)가 중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특권 유한계층에 속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자이며 부유한 유대인을 예외로 하면 젊은 귀족인 Bassanio, 그의 친구인 거상인 Antonio가 베니스를 대표하는 젊은이라면 금양모로 비유되는 상속녀 Portia도 벨몬트를 대변하는 젊은이의 하나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루함 혹은 권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의미없는 오락이나 축제로 그들의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 베니스의 상인, Antonio는 자신도 모를 슬픔에 젖어 있고 Portia도 넓은 세상을 지겨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유한 유대인의 딸 Jessica까지도 자신의 집을 감옥이라 여기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권태를 덜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의미한 말을 지껄이는 Gratiano나 어릿광대 Gobbo는 모두 이들 사회에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IV. 화폐와 인간관계

富에 토대를 둔 상업사회인 베니스에서의 첨예화된 인간관계는 돈에 대한 상이한 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돈거래를 둘러싼 Antonio와 Shylock의 대립은 우화(fairy tale)적 내용에 긴박감을 주고 있으며 Shakespeare시대의 사회가 품고 있는 富에 대한 상이한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중세 봉건체제하의 富에 대한 개념은 토지에 의존하는 호혜적 교환원리에 입각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사회가 경제적인 자기 이익의 표현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상호관계가 있는 의무의 체계에 의해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었다.”¹⁴⁾ 그래서 화폐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체제하의 무한한 부의 욕망을 본질로 삼는 듯이 보이는 금융과 교역은 전통적 사회의 기능면에서 쉽사리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었다. 다시말하면 전 상업사회 시대에 고안된 개념의 지배를 받는 계층에게는 비교적 뒤늦게 진입한 금융과 교역이 이들 계층이 갖는 중세적 사고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한편 상업사회의 대두로 신흥상인 계급들 사이에 지배적인 부에 대한 개념은 브렌타노가 지적하는 자본주의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¹⁵⁾ Brentano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정신의 본질은 무한한 營利慾 혹은 貨幣慾이다. 이러한 영리욕은 고대 바빌론이나 중세에도 존재하던 초역사적 개념이었으나 중세에는 카톨릭교리에 의해서 그 발현이 속박되었던 것이 르네상스 이후에 점차 중세적 제약에서 해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이론에는 도덕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제활동은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이러한 이론하에서는 富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인간이 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인간이 자기의 지위 안에서 생계에 필요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이 아니라 탐욕이며 탐욕은 치명적인 죄악이다.¹⁶⁾ Antonio와 Shylock의 대립은 이러한 상이한 두 개념의 대립인 것이다. 친구 Bassanio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개방한다고 선언하는 Antonio의 입장은 바로 중세적 부의 개념을 뜻하고 있다: 재산은 합법적으로 획득되어야 하나 그러나 가능한 한 그것은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또 재산의 사용은 실행 가능한 한 공동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개념 바로 그것이다. Shylock의 개념은 소비를 위한 생산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영리률 목적으로 한 생산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리의 추구가 하나의 자기목적화되고 윤리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무로서 일상생활의 목적에 맞도록 조직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첨예화된 두 대립된 개념이 극중에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극의 분류는 상업사회인 Venice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미약한 재력으로는 도저히 지탱하지 못할 정도의 호화스런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누적된 빚까지 청산하고자 Bassanio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Belmont의 Portia에게 구애하고자 떠나려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친구인 거상 Antonio에게 빌리고자 하나 Antonio의 재산은 모두 상선에 투자되어 세계 곳곳

14) R. H. Tawney(김종철역)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한길사, 1984), p.40.

15) 金宗炫, 經濟史 (서울:경문사, 1979), p.146.

16) R. H. Tawney (김종철역)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한길사, 1984), p.49.

곳에 흠어져 있는 상태이다. Antonio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Bassanio가 요구하는 돈을 빌리고자 하나 여의치 않아 베니스 사회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고리대금업자인 유태인 Shylock에게 돈을 구걸하게 된다. Antonio와 대면하게 된 Shylock의 방백은 그의 적대감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Antonio가 그리스도 교도이며 무이자로 돈을 대부하여 고리대금업자의 이자를 떨구고 정당하게 모은 자신의 재산을 비난하기 때문에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Shylock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진 빚을 툭툭히 갚으려고 버리고 있다. 이러한 의도와 아랑곳하지 않고 Antonio는 Shylock에게 이자를 주고 받으며 돈을 빌리지 않았으나,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관습을 깨뜨려 고리대금을 차용하고자 한다. Antonio가 자신의 수염에 침을 뱉고 도둑개 차듯이 문지방에서 차내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한다고 냉소로 응한다. 극의 진행과 더불어 드러나는 이들의 관계는 두 사람의 개인들의 갈등이 아니라 우정과 관용을 중시하는 부유한 상인과 이자를 받는 행위도 정당한 사업임을 주장하는 고리대금업자와의 대립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도와 유태인의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¹⁷⁾ 상업사회에서의 돈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은 이 극의 긴박감을 유지시켜 주고 있으며 Shylock의 편집광적 재화에 대한 애착은 회극적 구성까지도 가능케 하고 있다.

우선, 기독교도와 유태인의 대립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극에서 유태인을 대변하는 Shylock는 고리대금업자, 수전노, 그리고 그리스도교도의 피를 갈망하는 악한, 지독한 이기주의자, 무신론자, 조소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Shylock는 분명히 무대위에서 혐오나 조소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본 극이 상연되고 있지 않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Shylock는 분명히 Shakespeare 자신이 고안한 인물이며 그의 성격은 Plot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서, 전형적인 회극적 인물, 즉 “자신의 악행의 희생자가 되는 악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Shakespeare에 의해서 탄생된 Shylock는 구주대륙과 영국내의 통속극에 취급되던 유태인을 다루는 전통에 근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Shylock과 같은 유태인의 Shakespeare 시대의 영국에서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의아심을 품게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isson과 Roth의¹⁸⁾ 연구에 의하면 런던에는 지극히 소수의 유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만약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어느정도 그들의 신앙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Elizabeth 여왕의 시의였던 이태리계 유태인 Roderigo Lopez가 여왕 시해 음모에 가담하여 처형된 후 런던 사람들 사이에 반 유태 감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Shylock의 사악한 회극적 인물로서의 역할은 Antonio에 대한 증오심과 그의 딸 Jessica의 가출로 야기된 재물에 대한 편집광적인 애착과 증오심 등으로 돌보이게 된다. 특히 그의 Antonio에 대한 증오심은 고리대금업의 이윤을 낮추는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 고리대금업이

17) E. C. Petlett, 'The Merchant of Venice and The Problem of usury' in *The Merchant of Venice* ed. by John Wilders (London: The Mac Millan Press Ltd., 1981).

18) C. J. Sisson and C. Roth, *A History of Jew in England* (London: The Mac Millan Press, 1941).

야 말로 영국에서 사회적 변혁이 가져온 산물이다. 사회변혁이란 중세 봉건체제하의 농업경제 체제가 근세상공업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에 따라서 토지에서 얻어지던 富나 단순히 지대에 의존하던 봉건귀족은 상승하는 물가와 상인계급의 점증하는 부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과거로부터 지속해 온 낭비적 생활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Bassanio가 그렇듯이 이들 귀족계급의 사람들은 사치스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야 했고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업자를 찾게 되었다. 게다가 상거래가 지배적인 경제 행위로 전환됨에 따라 상인들 사이에 현금이 거래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긴급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리대금업은 은밀한 행위가 아니라 주요한 경제행위로 잉여자본을 투자할 유리한 사업의 영역이 되었다. 마침내 1571년 법안이 제정됨으로서 고리대금업은 공개적이고 법적인 것이 되었으며 Shakespeare의 시대에는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까지도 상당히 널리 보급되었었다.¹⁹⁾ 법이 허용하는 이율은 최대치로 10%가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이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이며 종교적으로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중세의 개념은 완강히 뿌리박고 있었다. 당시의 거래에는 고리대금업과 신용거래가 공존하고 있어서, 거래상의 혼란은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식자층에서는 고리대금업의 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들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극작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그들의 후원자(Patron)의 관심에 맞추어 고리대금업자를 비판하였는데 Shakespeare의 *The Merchant of Venice*도 이러한 극작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윤리의 차원에서 볼 때 극작가의 태도는 한 마디로 중세적이었다. 이러한 사회 일부에서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은 런던 뿐만 아니라 전 영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상거래가 현금에 의존하게 되므로서 자금변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고리대금업자를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는 유태인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근검, 절약과 노동의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흥종교 집단인 청교도들이 많았다.

극작가가 영국인 고리대금업자를 유태인으로 대치하고 있음은 극 작품이 공연을 전제로 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Antonio와 Shylock의 대립은 당시 부와 부의 축적에 관한 상이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Antonio는 보수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도덕관의 입장에서 고리대금업을 비난하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태도에는 Shylock이 누차 지적하고 있듯이 상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엿보인다. 베니스의 거상으로 기민한 장사술을 지닌 그가 젊은이들과의 관계에서는 극단적인 관용과 우애를 지닌 사람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Bassanio에 대한 그의 우정은 이러한 그의 성격울 잘 보여주고 있다. Bassanio의 도움을 요청에 Antonio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I pray you good bassanio let me know it.
And if it stand as you yourself still do,

19) E. C. Pettet, 'The Merchant of Venice and The Problem of Usury' 앞서 인용한 책.

Within the eye of honour, be assur'd
My purse, my person, my extremest meams
Lie all unlock'd to your occasions.

(1막1장)

자신의 지갑이고 자신의 육체이고 간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Antonio에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의 행동은 자기가 자신의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세심한 계산을 초월해 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나 Shylock에 대한 그의 태도는 Bassanio에 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냉혹하기까지 하다. 친구를 위해 돈을 차용하고 있는 그가 노골적으로 Shylock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다.

I am as like to call thee so again,
to spet on thee again, to spurn thee too.
If thou wilt lend this money, lend it not
As to thy friends, for when did friendship take
A breed for barren mental of his friend?
But lend it rather to thine enemy,
Who if he break, thou may'st with better face
Exact the penalty.

(1막 3장)

이러한 Antonio의 증오심은 부메랑 현상을 야기시켜 Shylock로 하여금 음흉한 복수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Shylock은 Antonio가 무의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의 사업인 고리대금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는 참을성이 자신의 민족의 특징임을 강조하고 Antonio을 제거하기 위한 올가미를 마련해 놓고 있다. Shylock이야말로 자신의 상속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야 했으며 Laban으로부터 공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 술책을 사용했던 Jacob과 같이 은밀히 타인의 궁핍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베니스 사회에서 자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인 Antonio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Antonio의 요구대로 삼천 더커트를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 대신 위약서 가슴 부분의 살코기 일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는 증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또한 Antonio를 경우 자신도 모를 슬픔과 Shylock에 대한 증오심은 하나의 연관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개막장면에서도 그렇지만 재판 장면에서는 이러한 슬픔이 자살이라도 저지를 정도의 우울증으로 변모되어 있다.

I am a tainted wether of the flock,
Meetest for death, -the weakest kind of fruit
Drops earliest to the ground, and so let me;

You cannot better be employ'd Bassanio,
Than to live still and write mine epitaph.

(4막 1장)

Antonio의 언급에 의하면 선량한 양떼가 기독교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병든자로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다. Shylock와는 가장 완강하고 당당한 그가 베니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가장 나약한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러한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극중의 인물인 Solanio와 Salerio는 상선 때문이거나 사랑 때문이라고 단정하나 Antonio는 이를 부정한다. 그래서 Salerio는 기질 탓으로 결론짓는다. 그러나 Goddard²⁰⁾은 당시의 사회에서의 상인의 미묘한 위치와 관련하여 슬픔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Shakespeare 시대의 귀족이나 신사계급은 돈버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 수단을 가진 남자였다. 이론적으로 상업이나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은 사회봉사에 관심을 기울이는게 아니라 자신을 유복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신사가 될 수 없었다.²¹⁾ Antonio의 신분은 상인이며 상인의 사회적 위치로 봐서 Antonio는 베니스의 젊은 귀족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분의 사람이다. Goddard는 더 나아가서 Antonio의 Shylock에 대한 증오심도 그의 직업적 속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상인과 고리대금업의 직업적 유사성이다. 상인인 Antonio가 친구들 사이에 돈에 관해서 지극히 관대한데 이러한 관대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돈의 출처는 Shylock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Shylock은 첫 대면에서 Antonio의 직업이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hylock은 Jacob의 예를 들면서 거래에는 여러 가지 술책이 있을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도 가지가지임을 암시한다. 그는 화물과 이윤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Antonio가 교역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이나 자신이 고리대금으로 받는 이자가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똑같이 돈벌이에 종사하는 Antonio가 자신의 고리대금업을 박대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은 Goddard의 지적과 같이 동류의 사람이며 한 배에 동승한 사람이다. Antonio의 관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돈벌이에의 능란한 수단이다. 그런데 돈벌이에 종사하는 직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관념으로 보아 저속한 종류의 일이며 이로 인하여 Antonio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Goddard는 그가 겪는 고통을 영혼의 향수병(the homesickness of the soul)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같은 내면의 동요는 그로 하여금 우정과 사랑에 헌신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정과 사랑은 어디까지나 감상적으로 울어나오는 것이지 우정 그 자체의 우정이나 사랑 그 자체의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의 슬픔이나 Shylock에 대한 격렬하고 비합리적인 정도의 혐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에 기인하고 있다. Kiberd²²⁾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인 Antonio와 고리대금업자 Shylock는 모두 외롭고 불

20) Harold C. Goddard, *The Meaning of Shakespeare Vol.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6), pp. 81~116.

21) G. B. Harrison, *Introducing Shakespeare* (New York: Penguin Books, 1963), p. 94.

22) Declan Kiberd, *York Notes: Notes on the Merchant of Venice* (London: Longman York Press), p. 51.

행한 사람들이다. Shylock이 베니스의 이방인이라면 Antonio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세계인 벨몬트의 이방인이다. 이처럼 돈 그 자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전체 집단과 소외적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된다.

Simmel²³⁾에 의하면 화폐는 개인의 전체집단에 대한 관계를 더욱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결사체와 그 구성원이 결사체와 맺고 있는 관계도 완전히 새로운 분화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 상인과 고리대금업자의 사회적 위치는 단적으로 화폐가 미친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케 하는 예가 되고 있다. 화폐의 효과는 개별 인간의 원자화 혹은 개별 인간내부의 개인주의화로서 표현할 수 있다. 적어도 화폐경제가 출현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였으며 서비스의 교환이 모든 사람을 전체 사회와 긴밀하게 결합시켰다. 그러나 관심이 화폐로 집중되고 재산이 화폐로 구성되는 한, 개인은 자신이 전체사회에 대해서 독립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감정과 경향을 갖게되며 사회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항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V. 화폐의 역할

베니스 사회를 둘러싼 상인과 고리대금업자간의 갈등은 돈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갈등은 상업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화폐의 역할이 비대하게 증대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화폐가 갖는 익명성 내지 비인격성으로 인해 기존의 인간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강요하게 된다. 이를테면 노동과 용역이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사회내에서 처리되었던 전통사회에서의 인간의 유기적 통일성과 친근함은 화폐가 가치척도의 단위나 모든 교환의 매체로 등장함으로써 화폐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다. Simmel²⁴⁾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화폐는 자신의 무한한 융통성과 분할 가능성을 통하여 수 많은 경제적 의존성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차별적이고 객관적인 성질을 통해 인간관계로 부터 인격적인 요소를 제거하는데 공헌한다. 본 장에서는 작품내의 사회에 계약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이질적인 계약체계의 성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베니스와 벨몬트의 대비적 관계는 우화적인 계약관계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베니스, 즉 상업사회에서 벌어지는 돈거래에서의 살코기를 담보로 하는 계약과 벨몬트의 상자고르기 그리고 반지를 통한 연인들사이의 사랑의 계약은 상이한 두 사회내에서의 다른 유형의 인간관계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사회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베니스를 무대로 하여 벌어지는 돈거래에서 Shylock가 Antonio에게 제시한 장난스러운 계약, 즉 살코기 일파운드를 담보로 하자는 계약은 Shylock의 치밀한 제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이미 Antonio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을 밝히고 난 후이므로 Antonio의 약점을 잡고 쌓이고 쌓인 원한을 툭툭히 갖고자하는 그의 의도에

23) George Simmel (안춘배외 공역), *돈의 철학*(서울, 한길사 1983), p. 433.

24) 앞의책, p. 107.

서 계획된 것이다. Bassanio는 처음부터 Shylock의 음흉한 의도를 간파하고 Antonio가 그의 계약에 말려드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삶의 방식에 회의하고 있는 Antonio는 순수히 적의 울가미에 걸려들고 있다. 거래상의 계약이 베니스 법률에 의해 그 효력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위약시 Antonio의 생명은 계획대로 적대자인 Shylock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Shylock과 Antonio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베니스 사회는 거래상의 신용이란 증서로 대체되어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신뢰의 벽은 이미 무너져 있어 비인격적인 계약관계로 보장되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인격적 계약관계는 돈벌이에 종사하는 상인과 고리대금업자간의 관계임을 주목해야 한다. 돈의 가치가 사랑 즉, 상호신뢰의 가치를 대체하고 있어서 이들간의 관계는 맹목적인 이해관계로 빠지고 있다. 계약은 이 사회가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이념들을 지닌 집단들로 구성됨으로서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다. 적어도 기독교도와 유태인으로 구별되는 Antonio와 Shylock과의 관계는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일치할 수 없는 견해를 갖고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질집단이 모여 사는 이 곳의 질서는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며, 합법성이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증서 이야기는 법의 문구와 법의 정신사이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서 합법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소재가 되고 있다.

베니스의 계약사회적 특성과는 달리 벨몬트의 계약의 특징은 우화적인 상자고르기로 결정된다. 진실한 연인을 기다리는 Portia가 구매자의 진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험과정도 여러가지 절차의 계약이 따르고 있다. 상자고르기는 허위와 진실을 구별하는 시험이며 벨몬트는 참된 사랑의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우화적인 세계가 된다. Freud²⁵⁾가 지적하듯이 상자고르기 시험은 전세계의 우화나 신화에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로 세번째의 것이 행운을 가져오는 내용의 것이다. 우화의 세계에서는 삼이라는 숫자는 마력을 지닌 것으로 행운을 가져온다. 세 미녀중에 한 사람의 진실된 여인을 선택하는 얘기는 이 극에 나오는 금케, 은케, 납케를 세 여인으로 대체할 때 가장 진실한 여자를 고르는 셈이 된다. 선택은 선택자의 가치부여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선택자 자신의 진실성이 세 케에 의해 판명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Portia는 고인이 된 부친의 유고에 따라서 자신의 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으며 옳은 상자를 고르는 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아야 한다. 부친의 유고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 그녀는 Jessica의 태도와는 대비적으로 당시 상류 사회의 엄격한 가정의 제율을 지키는 여인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상류계층의 가정의 제율은 엄격했으며 부친은 절대적이었다. Harrison²⁶⁾이 지적하는 Shakespeare 당시의 가족 관계를 보면, 가정내의 어린이는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하고 또 이것을 그들의 태도로 표시하도록 양육되었다. 딸의 결혼시 연인의 선택의 자유는 딸에게 있었으나 부친의 뜻에 일치되어야 했으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친의 의사가 배우자의 선택을 결정하였다. Shakespeare 시대의 여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거의 없었다. 결혼하면 여자의 재산과 돈은 변호사에 의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은 한 모두 남편의 소유로 이양되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여자의 경우 남

25) S. Freud, 'Theme of the Three Caskets' in *The Merchant of Venice* ed. by John Wilders (London: The Mac Millan Press, 1981). p. 60.

26) G. B. Harrison, *Introducing Shakespeare* (London: Penguin Books, 1968). pp. 95-96.

편을 선택하는 범위가 넓었으나 구매자의 참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상자고르기에 성공한 Bassanio에게 “제 자신이며, 재산이며, 모든 것이 이제는 죄다 당신의 것이 됐어요.” (3막2장)라고 말하는 Portia의 표현은 단순한 사랑의 표시만이 아닌 당시의 실정임을 느낄 수 있다. 남편선택의 어려움이나 그 중요성이 Portia로 하여금 아버지의 의사를 받들고 인습적인 선택의 과정에 상당한 존경심을 갖게 한다. 더우기 이 시험은 귀찮게 올라대는 진실되지 못한 구매자들을 물리쳐주기 때문에 그녀의 의무 다하는 데에도 부차적인 잇점을 더해주고 있다.

반지에 얽힌 스토리는 연인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반지는 사랑의 거래의 상징이며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명시하는 증서와도 같은 것이다. 논쟁은 Bassanio가 생명과 같이 간직하겠다고 맹서한 반지를 법관으로 변장한 Portia에게 주어버림으로서 발생한다. 둘 사이에 중재하게 된 Antonio가 구매를 떠나는 Bassanio를 위해 육체를 걸고 도왔듯이 이번에는 영혼을 담보로 Portia에게 반지를 주게 된 Bassanio의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한다. Portia가 그 보증을 받아들여 Bassanio를 용서하므로써 논쟁은 끝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증서사건과 상자고르기 그리고 반지논쟁은 이미 인간관계가 신뢰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증서사건은 상업사회의 거래가 사람자체에 대한 신뢰 보다도 증서에 더욱 큰 신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은 거래 당사자간의 가능한 분쟁을 전제로 한다는점이 주목된다. 상업사회의 갈등이나 분쟁은 법에 의존해 해결됨을 뜻하고 있다. 인간 상호간의 신뢰의 단절현상은 벨몬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자고르기 시험은 구매자들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돈이나 권력 그리고 외면에 드러나는 미를 쫓는 사람들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반지논쟁도 사랑을 확인한 두 연인 사이에도 계약의 존재함을 느끼게 한다. 반지는 두 연인들의 결속의 상징을 의미하며 상호신뢰를 뜻한다. 그러나 베니스의 거래상의 계약과는 달리 벨몬트의 계약은 진실과 긍정적인 조화에 입각하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시 되는 그런 계약이다. 베니스의 계약의 유효성은 법으로 보장되어 엄연한 한계가 있는 반면 벨몬트의 계약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목표로한 계약이다.

IV. 공익사회의 윤리

법정의 장면은 이 극이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대립된 가치관의 충돌에서 그는 점증하는 긴박감과 반전과 회극의 순간, 운명의 전도등은 이 작품이 연극의 대가의 작품임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회극작품이 그러듯이 본 작품에서도 부유하나 인색한 늙은이가 멋쟁이 젊은 연인들에게 회롱당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Shylock의 완전한 패배는 그의 사악한 의도, 즉 Antonio의 생명을 노리는 의도가 좌절되고 자신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재산이 박탈당하게 됨으로 이루어진다. Shylock의 패배는 극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볼 때 불가피한 것이

다. 그의 아집과 편견 그리고 음흉한 의도는 스스로를 자신이 세워 놓은 계획의 올가미 속으로 걸러들게 하므로서 회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본국의 저자는 상반된 견해의 대립을 통해서 적어도 공익사회의 원리, 즉, 한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 장면에서 이러한 공익사회의 원리가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재판장면은 공작이 Shylock으로 하여금 Antonio에게 자비와 연민의 정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며 시작된다. Antonio가 입은 손실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증서에 제시된 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며 인간적 우정과 애정에 감동하고 원금의 일부까지도 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에 Shylock은 증서에 기재된 것을 받고야 말것임을 고집하고 만약 그것이 거부되면 공작의 특권과 이 도시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을 들며 공작을 위협한다. 상업에 의존하여 교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유지되는 베니스는 모든 거래상의 계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서 Shylock의 주장대로 이것이 무너지면 도시의 존립의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Shylock은 이러한 경직된 논리로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해로운 적대자를 제거하므로써 베니스 상권의 지배자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Antonio의 생명을 노리는 이유는 감정의 주인공인 사람의 성미가 결정하는 기분이며, 이러한 기분은 그에 대한 해묵은 증오심 때문임을 밝힌다. 자기가 싫어한다고 다 죽여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Bassanio의 질문에 Shylock은 미우면 죽이고 싶은게 사람의 심정이 아니냐고 응수한다. 상반된 두 견해의 주장은 재판장면의 특징이다. 각각의 주장은 상대방의 주장의 해설부가 된다.

Antonio에게 편중된 공작이 Shylock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을 때 Balthazar라는 이름의 법학자로 가장한 portia가 등장하여 재판을 떠맡는다. 판사는 Shylock의 소송내용의 적법성을 베니스의 법률에 의해 인정한다. 그러나 그녀도 Shylock으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기를 권유한다: “자비라는 것은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리는 비와도 같은 것이어서,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비야 말로 군왕을 더욱 군왕답게 하는 것이며, 다시말하면 하나님의 덕이어서 이것이 정의를 완화할 수 있어야지 누구나 정의에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Shylock은 Portia의 호소마저 거부하고 베니스의 법률에 입각하여 자신의 소송이 처리될 것을 요구한다. Shylock의 주장을 받아 드려 Portia는 Antonio의 심장부분의 살코기 1파운드를 떼어낼 수 있다고 허락한다. 판사인 Portia의 법해석에 의해 의기양양해진 Shylock은 Antonio의 가슴에 칼을 드리대려 한다. Portia는 증서해석을 위한 새로운 사실을 지적하므로써 Shylock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살을 베어내는 과정에 고귀한 기독교도의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린다면, 그리고 베어낸 살코기 일파운드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Shylock에게서 생명과 재산을 베니스 법의 이름으로 몰수하겠다고 Portia가 선언한다. 또한 외국인이 베니스의 시민을 위협한 사실을 들어 이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법에 정해진 내용인 피고의 재산의 반은 피해자에 그리고 나머지 반은 국가에 귀속됨을 선언하므로써 Shylock은 완전한 패배자로 몰락한다. Shylock은 지금까지 법률에 대한 존경과 복종이 품위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믿었고, 법률이야말로 그가 호소하는 유일한 곳

이며 그의 유일한 권리였다. 그러나 끝내는 그가 그렇게도 의존하던 법률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지는 베니스 사회는 전 상업사회의 공동체적 윤리와 상업사회의 화폐의 윤리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로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적어도 이러한 사회에서의 가능한 인간관계를 제시하므로써 어떤 인간의 공통된 공존의 윤리를 가르치려 시도했으리라고 보인다. 우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상이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지라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로 대표되는 Antonio와 유태인을 대변하는 Shylock은 부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지니고 있어서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의견을 같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업에서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충돌이 불가피하며 양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하에 돈을 빌려 줘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차이는 이 근본적인 대립의 가장 외면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이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들 각자의 신념에서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장 높은 신념의 추구에서만 이러한 상이한 신념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Shylock의 몰락은 그의 경직되고 비인간적인 화폐의 윤리에 기인하고 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남의 궁핍을 이용하고자 했으며 적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복수심만 키웠다. 그는 아무런 이윤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Antonio의 살코기를 원했고 또 타협을 거부했다. 그는 Antonio의 살코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얻는 그의 모든 이윤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므로써 사회적 인간의 공존의 윤리를 거역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때문에 자만했고 확고 부동했다. 그는 법률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그 목적에 관련하여 변할 수 있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든지, 혹은 법률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미약함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며 영혼이었던 법에 의해 파멸에 이른다. 공익사회의 윤리로는 법률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베니스의 법률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잠정적인 휴전으로 몰고 갈 수는 있어도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서는 그 갈등은 언제나 재현될 것이고 각자는 그 법의 정신을 파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한 화폐욕이 허용되는 상업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만을 지니고는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적어도 법의 정신위에 인간 자체의 존엄성에 입각한 박애주의의 높은 목적에 입각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해 나갈 때 상이한 인간의 견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적어도 본 극은 이러한 공존의 윤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The Merchant of Venice에 나타난 갈등의 문제를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시켜 해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갈등은 창작예술의 내용에 한정되는게 아니라 16세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영국내의 사회적 변화와 변화하는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지리상의 발견으로 대외 무역이 격증하였고 이러한 무역으로 얻어지는 막대한 재화가 국내로 유입됨으로서 중세의 전통사회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화폐의 이용의 증가였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혹은 가치의 보존수단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화폐는 그 자체의 속성인 익명성, 비인간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켰으며 개별 인간의 원자화를 이루게 하였다. 화폐의 윤리는 Shyock의 부(wealth)의 극대화의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궁핍을 이용하는 것도 용인된다. 이러한 윤리는 상호관계의 의무체제를 중시하는 중세 사회의 윤리와는 상반된 이론의 체계이다. 이 극의 문제는 바로 재화를 둘러싼 상이한 두 견해간의 대립이다. 다시말하면 인간과 재화의 문제, 돈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Shakespeare는 이러한 상반된 두 논리가 충돌되는 사회의 윤리는 법의 정신만으로 뒷받침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베니스에서의 갈등에 대한 법적 해결은 그것을 잠정적인 휴전으로 불고 갈 수는 있어도 영구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해결에 의존할 경우 그런 갈등은 언젠가 재현하게 될 것이고 이때마다 각자는 그 법의 정신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한 사회의 갈등이 되는 문제의 해결은 입장이 다른 양측의 인간이 지향할 수 있는 공통의 신념을 추구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호의무체제의 사회조직이 와해되고 물질적 욕망이 팽배해지는 사회에서 상호이해를 위한 인간적 박애주의의 회복만이 상업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이 저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Badawi, M. M. (전광근, 이상오 공역). 셰익스피어배경, 서울: 한신문화사, 1983.
- Barber, C. L. *Shakespeare's Festive Comed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loom, Allan & Harry Jaffa(강성학역) 셰익스피어의 정치철학, 서울: 집문당, 1983.
- Brown, John Russell. *The Arden Shakespeare: The Merchant of Venice*. London: Methuen & co. Ltd., 1977.
- Charlton, H. B. *Shakespearean Comedy*. London: Methen & co. Ltd. 1979.
- Frye, Northrop. "The Argument of Comedy" in D. A. Robertson Jr. (ed.), *English Institute Essay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 Goddard, Harold C. *The Meaning of Shakespeare, Vol.1*.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 Granville-Barker, Harley. *Preface to Shakespeare, Vol.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rrison, G. B. *Introducing Shakespeare*.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berd, Declan. *York Notes: Notes on The Merchant of Venice*. London: Longman York Press, 1981.
- Styan, J. L. *Drama, Stage and Aud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Tawney, R. H. (김종철역).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 한길사 1984.
- Wilders, John ed. *Casebook Series: The Merchant of Venice*. London: The Mac Millan Press, 1981.
- Wilson, Gohn Dover. *Life in Shakespeare's England*. London: Penguin books Ltd., 1949.
- 최영, "베니스 상인에 나타난 대립된 가치관의 세계", 여석기外 공저 「환각과 현실」. 서울: 동화출판사, pp.159~176.

Summary

Money and Human Relationship in *The Merchant of Venice*

Lee Ki-wook

Shakespeare's *The Merchant of Venice* is one of his most popular plays and rare one reflecting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Elizabethan age's England. This play raises many important problems as to the nature of love and friendship, the relation of man to money, the morality of lending money at interest, the plight of Christian and Jew, parental authority, loneliness and the limited value of the civil law. All of these subjects are treated in this play, but few are completely resolved. So that critics are still uncertain about Shakespeare's own attitude to these difficult questions.

This thesis is made to define one of these problems, that is, the relation of man to money. with this subject, we try to show money and human relationship in the transitional society, dealing with main conflict in this play. In doing so, we also try to answer to the problems such as the morality of lending money at interest and Shakespeare's own attitude to these problems.

The play opens among the noblemen of Venice, Antonio, Bassanio, and their friends. In this city of glamorous aristocrats money and wealth are crucial elements and yet such affluence has not brought happiness. These young people belong to a privileged leisure class, and yet they complain constantly of boredom and weariness. In desperation, the young men and women of this privileged class attempt to fill in the time with meaningless amusement and festivity. Therefore their privileged society relies on money for its support. To continue their lavish life they should loan money from others. And so they fear the Jewish moneylender who may destroy them. Like all exclusive leisure classes, they have social outcast, Shylock the Jew and conflict with him about money problems.

This story has its relation to socio-economic problems of Shakespeare's time. In that time in fact noblemen fell deeply into debt and were forced to take loans from the moneylender. In doing so, they knew that they were in breach of traditional Christian teaching on the subject. Shakespeare echoes a contemporary Elizabethan debate. We must not deduce from the theme of money that Shakespeare was opposed to money or even critical of those who pursued it. After all we can see that Shakespeare was more interested in the differences in people's attitude to money and different uses. Conclusively we are able to be sure that Shakespeare stresses the need for tolerance and forgiveness, that is to say, the ways in which people depend upon one another in the commercial society.